

공군,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



공군은 11월22일 공군호텔에서 한국행정연구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12회 민·관·군 갈등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갈등관리 전략 모색'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각 군과 정부·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실무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채종현 박사는 '정책수용성 제고와 갈등관리'를 주제로 "효과적

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해야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김강민 교수는 '군 갈등의 현황과 특성'을 주제로 군사시설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군 갈등관리는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공군, 연합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

한미 공군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제공권(制空權) 장악을 위한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을 연합으로 펼쳤다. 양국 공군이 연합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을 한 것은 약 30년 전 '팀 스피릿(Team Spirit)' 이후 처음이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와 미 7공군사령부(7공군)가 11월 16일 주관한 이번 훈련은 공군16전투비행단(16전비)이 관리하는 경북 영주시 비상활주로에서 열렸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KF-16·F-5 전투기, TA-50 전술입문기, CN-235 다목적 수송기와 함께 미 공군의 F-16 전투기,

A-10 공격기 등 항공전력 10여 대가 투입됐다. 이날 훈련은 완전히 착륙하지 않고, 상공 100피트(약 30m) 높이에서 비상활주로를 따라 지나가는 로우 어프로치(Low Approach) 방식으로 진행됐다.//

39비,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공군39비행단(39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 정비 모범사례로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39비 예하 131정비대는 12월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군(軍)으로는 유일하게 행안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행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공공·민간 분야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

굴·포상하는 지식 분야 국내 최고 권위 상이다. 131정비대는 '부적합품률 감소로 항공기 가동률 향상 및 고고도 임무 향상'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공군 문제 해결 시스템인 'AIR-FORCE' 기법을 활용해 정비대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문제점들을 분석·해결했다는 점에서 스마트 정비 모범사례라는 극찬을 받았다.//

한미, 5년 만에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공군과 미 7공군사령부(7공군)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 항공작전 수행태세를 검증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은 지난 2017년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이후 5년 만이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F-15K·(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항공기 140여 대와 미군 F-35B 전투기,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



기 100여 대 등 총 240여 대의 항공기와 수천 명의 장병이 참가했으며, 호주 공군 KC-30A 공중급유기 1대도 투입됐다. 호주 공군이 한미 연합훈련에 동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 2022년 항공우주 학술대회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는 11월 1일 교내 강당에서 각 군 사관생도 및 일반 대학생 등 9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항공우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의 기조 강연과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정현주 센터장의 특별강연, 분과별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23개 팀이 4개 분과(항공 과학기술, 우주 과학기술, 융·복합 과학기술, 항공·우주 정책)로 나눠 주제 관련 연구 결

과를 발표·토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사는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융·복합 과학, 항공우주 정책 등 필요성과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도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에 김상훈·천호정 준위

공군방공관제사령부 7318부대 김상훈 준위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51항공통제비행전대 천호정 준위가 2022년도 공군 최우수 방공무기통제사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이라는 의미의 '골든아이(Golden Eye)' 칭호가 부여됐다. 공군은 11월 24일 방공관제사령부에서 '2022년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군은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항공통제 작전요원들의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980년 대회를 도입했다. 한편 단체 부문에서는 7318부대 1통제

대가 최우수 부대에 올라 국방부 장관상을, 3통제대가 우수 부대로 뽑혀 합참의장상을 수상했다.//

공군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

공군 우주센터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민·관·군·산·학·연 협력 확대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우주안보 세션'을 개최했다. 지난 1980년 처음 개최된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선도국 도약을 위해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항공우주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우주력 발전 및 전력운

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우주안보 세션은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윤병호 공군참모차장 축사와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특별강연, 학술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학술발표 차례에서 민·관·군·산·학·연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을 통한 우주안보 발전 방향 고찰', '국가 우주안보 달성을 위한 공군 우주력 추진 방향' 등 23건의 주제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SCM)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연습과 연계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한 협력도 긴밀히 진행하기로 했다.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2023년 초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에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국방 분야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과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0월 21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 20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참석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참모총장과 이 같은 내용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존 애컬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도 배석했다. 3국 합참의장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역내 안보



도전,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밀리 의장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 ‘핵·WMD대응본부’ 창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월2일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 창설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핵·WMD대응본부 창설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 대응센터에 정보·작전·전력·전투발전 기능을 추가·확대해 별도의 본부로 탄생했다. 핵·WMD대응본부는 앞으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전



자기스펙트럼·우주 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할 예정이다. 전략사령부 모체 부대로서 운영·검증을 통해 우리 전략환경에 최적화된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 성공

국방부는 12월 30일 있었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2차 시험비행에서 1차 시험비행 때보다 진일보한 성공을 거뒀다고 1월 2일 평가했다. 이번 2차 시험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총 4단으로 구성되는 발사체에서 1단을 제외한 2·3·4단 형상으로 시험했고, 2·3·4단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시험했다.



지난해 3월 30일 1차 시험때는 같은 형상에서 2단 엔진만 연소했다. ADD가 시험비행체(TLV)라고 부르는 이 발사체는 1~3단이 고체연료를 쓰고 상단부(upperstage)에 해당하는 4단은 궤도 진입 정확성 확보를 위해 액체연료를 쓴다. 이번 시험에서 2~4단 연소뿐 아니라 페어링 분

리, 단 분리, 상단부 자세제어, 터미(모의) 위성 탑재체 분리 등의 검증도 이뤄졌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시험과 기술 검증을 거쳐 2025년께 500kg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500km 지구 저궤도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미연합군사령부 평택 시대 본격 개막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는 11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연병장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4주년 및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폴 러케머라 연합사령관, 6·25전쟁 참전국 대사, 내·외빈 등이 참석했다. 러케머라 연합사령관은 부대 이전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약속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수년 전에 심었던 씨앗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연합사 주소는 바뀌었지만, 철통같은 한미 유대관



계는 변함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연합사는 지난 1978년 11월 7일 창설해 약 44년간 서울 용산에 주둔했다. 이후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사의 평택 이전을 합의했다.//

미 B-1B 전략폭격기 5년 만에 한반도 상공 전개·비행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11월 5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연합훈련으로 마무리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의 일환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한미 공군 F-35A 4대, 미 공군 F-16 4대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공군의 B-1B 전략폭

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비행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주한미군사령부 내 ‘우주군 부대’ 창설

주한미군사령부에 북한 미사일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우주군 부대가 창설됐다. 주한미군사는 12월14일 오산기지에서 주한미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을 개최했다.

대로 미 인도태평양우주군사령부의 예하 부대이자, 미 우주군의 야전 구성군사령부 기능을 한다.

창설식에는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앤서니 매스텔러 미 인도태평양우주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주한미우주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부사령부에 이어 미 군이 해외에서 세 번째로 창설한 우주군 부

주한미군사에 따르면 주한미우주군은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한다.

또 역내 미사일 경보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등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실시간 감지 수준의 미사일 경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가 10월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겸 합참의장, 유명한 한미동맹재단 이사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빈센트 브룩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했으며, 국가보훈처가 후원했다. 참석자들은 콘퍼런스에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대한민국 국제보훈

정책 방향, 유엔군사령부 근무 및 주한미군 복무 장병 예우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강원권 국립호국원, 횡성군에 조성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 부지로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일대가 선정됐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12월1일 “강원도 횡성·양구·영월군으로부터 국립호국원 유치 희망지 7곳을 접수한 뒤 최종 평가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강원권 국립호

국원 조성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4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훈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인허가 등의 제반 절차를 마치고 2026년 6월부터 2년간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규모는 봉안 시설 2만기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범정부적으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해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매년 범정부적으로 펼쳐는 훈련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2021년에는 토론훈련만 했다.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훈련은 다중 밀집시설 화재, 철도 사고, 경기장·공연장 사고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해제되면서 올해는 토론훈련과 함께 현장훈련을 병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

유엔기념공원서 국제추모의 날 행사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정부 행사가 11월 11일 부산시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22개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훈처의 초청으로 11월 7일 한국을 찾은 15개국 114명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2007년 빈센트 커트니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에 따라 처음 시작됐으며 2008년부터 보훈처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제정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보훈처,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 새 제복 지급

국가보훈처(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으로 진행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모든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고 밝혔다.제복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이다. 10월말 기준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약 5만5000명이다.

보훈처는 11월 14일 "참전용사들에게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을 실제 주요 정책으로 발전시켜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도에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제복 신청방법과 일정 등 세부 내용은 보훈처 홈페이지와 소통망(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으로 전달하고, 참전유공자들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단축

국가보훈처(보훈처)가 군인·경찰관·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신체검사 대체 제도와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11월29일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0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상이다. 이들의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특히 보훈처는 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여 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2023년 1월 중 신설된다.

패스트트랙은 전역·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관·소방관

아울러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소요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2023년 7월부터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북 핵·미사일 위협 상정 '호국훈련' 실시

우리 군이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2022년 호국훈련'을 실시했다. 호국훈련은 우리 군의 연례적인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이번 훈련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군사대비태세를 한층 끌어올렸다.

적인 주·야 훈련을 전개함으로써 전·평시 임무 수행능력을 숙달시켰다"고 전했다.//

합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고, 특히 합동전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정하여 실천

전쟁기념관 '아카이브센터' 개관

전쟁기념관은 11월9일 '6·25전쟁 아카이브센터(Korean War Archive Center·KWAC)'를 개관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KWAC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25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아카이브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누구나 방문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전쟁·군사 소재의 다양한 전시·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KWAC는 도서 열람과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도서자료실'과 6·25전쟁 관



련 희귀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전문자료실', 수집된 실물자료 현황을 직접 볼 수 있는 '보이는 수장고'(2023년 오픈 예정)로 구성됐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모든 자녀에 균등 지급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연장자에게 우선 지급 중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2023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지급된다. 또 수급권 이전 제한도 사실상 상폐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2월 19일 밝혔다.

게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 수당 분할지급은 1월부터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 지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졌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가 2만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보훈처는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

보훈처는 현재 생계곤란 가구에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제83국가보훈처(보훈처)는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11월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거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날이다.

용했다. 두렵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독립의 길을 가까이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을 담았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선열의 말씀 낭독, 주제 공연, 독립유공자 포상, 헌정 공연,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나의 길 새로운 길'을 주제로 열렸으며, 독립유공자 가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 세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주제는 윤동주 시인이 시 '새로운 길'에서 제시한, 고난·시련을 이겨내고 자유·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굳은 의지를 인

최명상 회원, '자랑스런 서울사대부고인상' 수상



본회 최명상 회원(예, 준장, 공사 16기, 전 공군대학총장)이 12월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에서 제 24회(2022년도) '자랑스런 부고인'상을 수상했다. 최 회원은 국가안보와 영공수호에 헌신해온 국가유공자로 34여년간 군에 헌신한 업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영하 회원, 2022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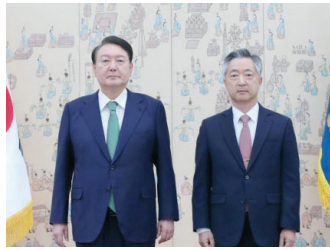
이영하 회원(예 중장, 공사22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이 연합뉴스와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 뉴스파일 및 교통교육복지연구원이 주관한 2022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문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회원은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도적 정신과 리더십으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한 바를 높이 사 대상을 수상했다.//

김형철 회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 취임



김형철 회원(예 중장, 공사28기, 전 공군참모차장)이 11월 1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은 미 공군대학원에서 시스템관리학 석사,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퇴역 후에는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로 항공운항 분야와 안보학을 강의했다. 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자유수호포럼 등 시민단체를 조직해 이끌었다. 김 원장은 "기부금 증대, 연구용역과제 수주 확대, 예비역 교양 강좌 확장, 우수 연구위원 관리·여건 마련, 장비·청소년 안보의식 증진 사업 등을 바탕으로 경영혁신과 목적사업 내실화를 이뤄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역할·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왕근 회원, 주 콜롬비아 대사 부임



이왕근 회원(예 대장, 공사 31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12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추계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수여받고 12월 29일 주 콜롬비아 대사에 부임했다. 이 회원은 공군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및 제3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 회장단 부대 위문

공군항공과학고총동창회(회장 김진홍) 회장단 일행은 10월 17일 벽제 방공포병대대를, 그리고 11월 7일에는 망일산 방공관제대대를 각각 방문하여 영공방위 임무수행에 헌신하고 있는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 100만원씩을 각각 전달했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정경두 신임 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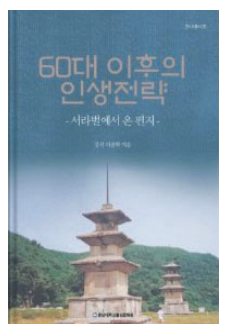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공사) 총동창회는 12월 22일 공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을 제30대 총동창회장에 선임했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1982년 공사 30기로 입관한 정 신임회장은 공군1전투비행단장, 제35대 공군참모총장, 제40대 합참의장, 제46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다.정 신임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교와 공군 발전에 헌신해온 선배님들의 업적·성과를 계승하겠다"며 "공군과 국가안보 발전을 위한 국방정



책 연구, 동문 가족 장학사업 등을 통해 공군과 공군사관학교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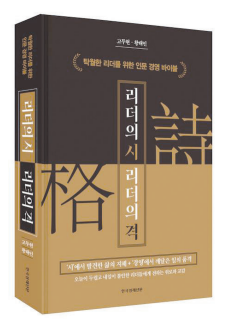
이종학 회원, '60대 이후의 인생전략' 출간

이종학 회원(예 중령, 공사 3기, 서라벌연구소장)이 최근 '60대 이후의 인생전략'을 출간했다. 공사 및 공대 교수부에서 근무 및 충남대 특임교수를 역임한바 있는 이 회원은 인생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60대 전후하여 퇴직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를 앞으로 40년간의 인생목표를 확고히 정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본문에서 저자는 한 군사학도의 지난날의 단상,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군사학, 군사고전과 변증법, 신라 삼국통일의 의의, 신라의 해상세력과 감은사 창건,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한 단상 및 한반도와 중국의 미래관계를 위한 단상을 기술했으며, 60대 이후의 인생은 황혼기가 아니라,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결실기와 황금기임을 역설했다.//



황태인 회원, '리더의 시 리더의 격' 출간

황태인 회원(예 중위, 학사 70기) 10월 28일 탁월한 리더를 위한 인문 경영 바이블 '리더의 시 리더의 격'을 출간했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인 고두현 시인과 최고 경영자(CEO)를 역임한 황태인 토브넷 회장이 함께 쓴 책이다. 격려, 역경, 치유, 교감, 성찰, 해학 등 29가지 키워드를 두 저자가 각기 다른 시각으로 풀어낸 인문 경영 에세이다. 저자들은 무심코 지나기 쉬운 책 속의 시 한구절, 지인과의 담소, 우연히 목격하거나 경험한 일 등 곳곳에서 화두를 발견했다. 일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와 주변과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등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며 써온 글들을 모아 출간했다.//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임관 기념 초청행사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는 11월 26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임관 10·20·30·40·50주년을 맞는 동문을 모교로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동문들이 공사와 공군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후배 생도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 20·30·40·50·60기 동문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공중 근무 순직자의 희생을 기리는 '영원한 빛' 추모비를 찾아 헌화·묵념했다. 이어 임관 기념식에서는 스모교 추억 영상 상영, 스발전기금 및 감사패 증정, 스생도 분열, 스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 스생도 응원단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동문들은 행사 종료 후 공군박물관을 비롯한 시설을 견학하며 달라진 모교와 공군의 발전상을 확인했다.//